

## 여성구술생애기록물 맥락 표현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화에 관한 연구\*

이정연\*\* · 이정연\*\*\* · 유종덕\*\*\*\* · 이종윤\*\*\*\*\*

1. 서론
2. 구술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 분석
3. 여성구술생애기록물 메타데이터 개념 모델링
4. 여성구술생애기록물 기록 계층 분류
5. 결론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2-B00022).”

\*\* 주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 나사렛대학교 점자문헌정보학과 교수.

주요논저 :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6권 제1호, 2009;  
「웹 구술사료(口述史料) 아카이브 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평가용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6권 제4호, 2009.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 [국문초록]

구술은 생존자의 기억을 통해 재현된 내용을 기록화 시키는 작업으로 구술채록은 구술자, 면담자, 촬영자, 녹취자 등의 협업을 통해 수행된다. 따라서 구술기록물은 생산 당시의 맥락이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며 구술기록물 수집을 위한 기획, 구술기록물 수집, 보존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본 연구에서는 구술기록물 중에서도 여성구술생애기록물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의 개념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통하여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여성구술생애기록물 관련 기획부터 생산, 보존, 관리, 이용에 이르는 기록 관리의 전 과정을 포함하여 계층으로 분류하였으며, 전자레코드와 주제 시소러스를 통해 '여성'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여성구술기록, 구술생애사, 메타데이터 모델링, 구술 아카이브, 구술사, 기록**

### 1. 서론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부터 구술은 의사소통의 형태로, 기억을 보존하여 전승하기 위한 도구로 존재했다. 예전에는 기억을 전승하는 구술자가 이전세대의 기억을 구술의 형태로 다음 세대에게 내용을 전해주었다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경험을 음성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은 자신들의 경험과 기억을 문자로 서술해내지 못했던 사회 계층들에게 구술을 통하여 그들의

경험과 기억이 채록되어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구술은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활동 그리고 경험에 대한 내용을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기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과거의 활동이나 경험을 서술하거나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다양한 학문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그동안 기록관리 영역에서 구술의 영역은 신뢰할 수 있는 기록으로서 주목받지 못했다. 19세기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발전된 기록관리 학에서는 문자로 쓰여진 기록물들만이 신뢰되었고, 문자화된 기록들만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의 생산과 축적이 가능해지고 문자화된 기록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기록관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들도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어가고 있다.

구술은 문자화된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과거의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생존자의 기억을 통해 재현된 내용을 기록화 시키는 작업이다. 과거에는 면담자가 구술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기록하고 메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구술채록이 기술의 발전으로 음성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녹취된 문서로는 알기 어려운 구술자의 언어표현이나 서사적 텍스트와 상황적 텍스트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구술을 통해 음성 및 동영상 파일뿐 아니라 녹취문, 상세 목록, 면담일지나 면담후기 등의 구술과 관련된 각종 서식 등이 생산된다. 이러한 다양한 구술기록물은 구술자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구술자, 면담자, 촬영자, 녹취자, 편집자등의 다양한 생산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보와 이들이 수행한 작업을

기록화하여 구술기록물의 생산자와 생산목적, 방법 그리고 처리이유와 방법 등에 대한 맥락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다양한 정보 속에서 기록물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구술채록은 구술자, 면담자, 촬영자, 녹취자 등의 협업을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구술기획, 수집, 보존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구술기록물의 생산과 정리 및 보존에 이르는 일관된 절차를 통해 구술기록물을 관리하고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하여 구술기록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곳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기존의 구술사 분야에서 수행해 온 절차를 준용해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조차도 구술 채록된 기록물에만 관심을 두고 보존,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구술기록물이 대부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생산되므로 구술의 수집 이전과 이후에 생산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제공에 관심을 두고 기록물을 서비스하는 기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술기록물들의 다양한 생산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술기록물 생산과 관련된 맥락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술채록 사업, 다양한 행위주체, 기록물들 간의 관계에 대한 맥락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기존의 구술기록물의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구술기록물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디지털 구술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프로젝트, 다양한 행위주체, 구술기록물들간의 관계에 대한 맥락정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메타데이터의 개념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통하여 요소들을 추출 하였다.

‘근대와 여성의 기억<sup>1)</sup>’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되는 구술기록물

---

1) ‘근대와 여성의 기억’ 아카이브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과 한국구술

은 여성구술생애사에 해당한다. 때문에 여성과 구술생애사라는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여 구술기록물을 생산하고 정리, 보존, 관리하고 그 구술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구술생애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술생애사는 인간의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세계와 그 경험 세계에 대한 주관적 의미가 중요하다. 또한, 생애사에 드러난 구술자의 자아는 문화마다 개념이 다르며 그 중에서도 젠더는 중요한 자아의 구성요소라 볼 수 있다. 둘째, 구술생애사는 내러티브에 중요한 의미를 둔다. 젠더의 특성을 살리고 내러티브에 의미를 둔 구술채록과 그에 따라 생산된 기록물을 디지털 아카이브에 보존하여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기존의 구술수집 및 구술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구술 채록한 음성 및 동영상 기록물과 녹취록 등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이었다. 물론 이용자를 위해 메타데이터 요소를 개발하고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메타데이터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구술기록물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근대와 여성의 기억’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여성구술생애기록물의 특징인 ‘구술기록물’과 ‘여성’, 그리고 ‘근대의 한국 여성의 삶’이라는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맥락 표현의 방법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구술’, ‘생애사’, ‘여성’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과 이것을 구조화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개념 모델링이 필요하다. 즉, ‘근대와 여성의 기억’

---

사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여성 구술생애사로 본 한국의 근대: 분단개발탈식민의 경험과 기억(이하 ‘근대와 여성의 기억’으로 약칭)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년간 진행되는 연구 프로젝트 과제중 하나로 설립되었다. ‘근대와 여성의 기억’ 연구 프로젝트는 여성구술생애사 수집, 구술기록물 분석을 통한 주제연구,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연구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생산되는 기록물들을 획득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구술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이용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과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구술기록물을 검색했을 때, 검색결과를 통해 이용자들이 ‘여성’의 ‘생애’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술자의 지역 이동과 직업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2) 선행연구

서구의 기록학계에서는 구술기록물과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구술기록물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방법론에 대하여 구술사학회의 논문이나 구술수집기관 차원의 가이드라인 등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기록학계에서는 구술채록이나 관리에 대한 방법론적인 내용보다는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참여 문제나 아카이브에서 구술채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Francois Rochat는 구술채록을 파편화된 기록의 빈틈을 메우는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보고, 구술과 기록의 상호보완적인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sup>2)</sup>.

Ben Alexander는 우리 사회가 전자기록물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카이브는 문화적인 기억과 관련하여 기록보존소가 여전히 비어있다고 말한다<sup>3)</sup>. 단편적이면서 제한된 물리적 기록과 역사를 재현하고 문화적 전통을 해석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 사이에 구술이 어떻게 영향력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

---

2) Francois Rochat, “Psychology, Archives, and Memory”,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n Archives*, 2004.

3) Ben Alexander, “Excluding Archival Silences : Oral History and Historical Absence”, *Archival Science* vol.6, number 1, 2006, pp 1-11.

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술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권미현은 기록관리 방법론을 통해 구술사료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sup>4)</sup>. 이 논문은 구술기록물의 생산, 분류, 기술, 보존, 활용 등으로 영역을 나누어서 구술수집 기획부터 기록물 이용까지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구술기록물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구술기록물을 조직화하고 이를 기술하기 위한 요소로 구술사료 기술요소(안)을 통해 구술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요소도 제시하고 있다. 제시한 구술기록물의 분류와 기술요소들은 구술기록물 특성을 반영하여 기록물들 자체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할 수는 있으나 기록물들 간의 맥락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부족하다.

김주관외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기록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구술기록물의 채록, 정리 및 보존에 관한 종합적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up>5)</sup>.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이 구술방법을 교육하는 것과 구술채록을 표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술기록물의 정리와 보존 방법에 대해 개관하고 있을 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술채록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기록물들을 어떻게 획득하고 관리, 보존하여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구술기록물의 의미와 관련하여 김명훈은 기존의 구술에 대한 논의를 기록학의 영역으로 끌어와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이 지닌 의미와 역할을 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 구술기록의 생산, 정리 및 보존 절차를 위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들이 구술채록 전반에 관한 절차를 다루고 있기 보다는 각 부분에 대한 분절적인 설명에 그친 것을 밝히며 현재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는 디지털 구술기록물을 생산에서부

4) 권미현, 「구술사료의 기록학적 관리방법 연구」, 『기록학연구』, 10, 한국기록학회, 2004.

5) 김주관 외, 『구술 기록물 종합 관리 체계 방안 및 구술 채록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2007.

터 보존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절차를 수립하였다<sup>6)</sup>. 이는 구술 채록사업을 기획연구 단계와 구술채록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절차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다루고 있어 실제 구술채록 사업을 하려는 기관의 프로세스 수립에 단서를 제공한다.

구술기록물 메타데이터와 관련하여 이정연은 구술사 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 의미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표준 메타데이터 요소 세트와 요소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기술하는 틀인 스키마에 의해 구조화될 필요성을 주장한다<sup>7)</sup>. 이를 위해 구술기록물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메타데이터 설계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메타데이터 요소로 표현함과 동시에 다른 구술기록물과 데이터 통합과 교환이 용이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프로젝트, 관리, 기록, 연관기록의 계층적 관계로 구성된 모델링은 프로젝트의 영역과 기록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되는 기록물이 기록의 영역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기획을 통해 생산되는 기록물은 프로젝트 영역에, 구술채록을 통해 생산되는 기록물은 기록의 영역으로 이원화하였다. 또한 프로젝트의 연구자와 기록의 저작자의 하나인 연구자가 동일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이를 이원화하여 요소로 설정하였다.

- 
- 6) 김명훈,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기록학 연구』, 24, 한국기록학회, 2010, 73~112쪽; 「디지털 구술기록의 생산 및 정리·보존 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0권 제1호, 2010, 7~29쪽.
  - 7) 이정연,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6권 제1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09. 163~184쪽.



### 3) 연구방법

본 연구 방법론으로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여성구술생애기록물의 맥락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주요영역 개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 사례연구를 통하여 구술기록물을 서비스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 요소와 그 요소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기록물들 간의 관계 설정에 관해 분석하였다. 셋째, 구술기록물 생산에서부터 이용까지 기록화의 전 과정과 ‘여성’과 ‘구술생애기록물’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메타데이터 주요영역 개념 모델링을 제시하며 구술기록물의 맥락 표현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도출하였다. 넷째, 기록화의 전 과정을 담보할 수 있는 기록계층의 분류와 기록물들 간의 맥락을 표현하기 위하여 기록물들 간의 관계를 조직화하고 메타데이터 요소들의 구조화를 통해 구술기록물의 기록계층을 분류하고 전거레코드를 설계하였다.

## 2. 구술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 분석

국내에 구술기록물을 수집하여 서비스 하는 기관은 다양하다<sup>8)</sup>. 다양한 기관들이 특정한 역사적 사건,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지역, 예술, 일상 등의 주제나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관련하여 구술 채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한국정신대연구소 등의 몇몇 기관들은 채록한 구술기록물들을 정리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거

8) 김주관 외, 『구술 기록물 종합 관리 체계 방안 및 구술 채록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2007, pp. 5-14.

나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하고 있다.

국외의 구술사 아카이브로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구술사 연구소(Oral History Reseach Office),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의 국립인류학아카이브(National Anthropological Archives), 홀로코스트 박물관(Holocaust Museum)내 구술사 아카이브 등이 있다. 이외에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수집된 구술기록물들을 기관이나 대학에서 수집하여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목록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존재하는 수많은 구술 아카이브 중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카이브들 중에 많이 회자되지 않았으나 구술 아카이브 구축에 시사점을 주거나 엘리트 구술이 아닌 여성이라는 소외계층의 구술생애사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20세기 민중생활사 디지털 아카이브, USC Shoah 재단 아카이브, 유대인 여성 아카이브(이하 JWA로 약칭)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기록계층에 대한 정보, 구술기록물 자체에 대한 정보, 구술자 정보, 면담자 정보, 구술기록물 보존장소에 대한 정보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이다.

구분	기록계층 정보	구술기록물 자체에 관한 정보	구술자 정보	면담자 정보	구술기록물 보존장소 정보
민주화 운동기념 사업회 사료관	과제명	구술일자	구술자명	면담자명	없음
	과제요약	구술일시 및 장소	개인 이력		
	과제개요	구술시간			
		구술내용			
		상세목록			
		요약			
		녹취문			
		관련어			
	첨부파일				

		참고자료			
20세기 민중 생활사	과제명	제작년 월일	제보자명	면담자명	보관장소
	과제기간	제작기간			
		제작자			
		게시자			
		제목			
		주제			
		주요내용			
		자료배경			
		기록언어			
		기록형태			
		자료형식			
		자료번호			
		FRID Tag FD			
		형식			
		저작권			
	자료출처				
	수집장소				
USC Shoah	없음	구술장소(주)	구술자명	없음	없음
		구술장소(국가)	젠더		
		구술언어	생년월일		
		구술시간	태어난도시		
		코드	태어난나라		
			종교적 정체성		
			계토		
			수용소		
			은신 여부		
			가명으로 은신(위치)		
			은신장소 유형		
			지하조직/ 저항그룹		
			저항그룹명		
	나치로부터				

			도망 여부		
			강제 행군		
			해방국		
			해방 위치		
			원조기부자/해방자/전범재판참여자 여부		
			다른 경험		
JWA	없음	물리적 크기	생애 기간	없음	설립일
		자료유형	직업		해산일
		장르	생애 정보		보존소명
		컬렉션			주소
		자료 생산일			전화번호
		내용요약			담당자
		관련정보			이메일
					URL
		유형			
			보존소 (링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 서비스 중인 4월혁명구술아카이브<sup>9)</sup>는 구술컬렉션별, 구술자별, 키워드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각각의 검색결과는 간략목록화면의 구술자, 구술일자, 상세목록의 링크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술기록물들은 과제를 중심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과제는 세부주제가 하위로 계층 분류되어 있다. 구술기록물의 생산주체인 구술자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구술자명, 개인이력, 면담자명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sup>10)</sup>은 아카이빙을 위한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더블린 코어를 채택하였다<sup>11)</sup>. 메타데이터 요소를 Description, Name

9) <http://oralhistory.kdemocracy.or.kr/servlet/com.avatar.mms.cybr.main.MainCmd>

10) [http://www.minjung20.org/new\\_archives/](http://www.minjung20.org/new_archives/)

& Date, Physical, Supporter, Identifier, Location, Relationship, Access로 영역을 구별하여 표현하였다.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의 구술기록물들은 구술을 채록한 면담자들을 중심으로 기록물이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다양한 민중들의 생활사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집장소’라는 요소가 중요하다. 이용자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이용할 때 지도의 일정 지역을 클릭함으로 구술기록물에 접근가능하다. 그러나 20세기 민중생활사 연구단은 구술자 정보를 제보자라는 메타데이터로 이름만 알려줄 뿐 다른 메타데이터가 없으므로 인해 구술자 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USC Shoah 재단<sup>12)</sup>은 홀로코스트 52,000 여명의 생존자들과 목격자들에 대해 인터뷰 하였으며 인터뷰는 대부분 유대인 생존자들의 증언이지만 동성애자 생존자, 정치적 수감자, 구조자, 도움제공자, 전범 재판 참여자등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목록 정보는 온라인 증언 목록<sup>13)</sup>에서 검색가능하며, 각 증언의 목록은 인터뷰 이전에 예비상견례에서 작성된 예비 질문지로부터 미리 수행된 각 구술자에 대한 간단한 생애 정보로 구성되어있다. 질문지는 구술자의 태어난 곳, 교육 정도, 가족 구성, 전쟁 전 직업, 종교, 계토 및 강제수용소 경험, 저항 활동과 전후 생활 관련 내용 등의 상세한 생애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USC Shoah 재단의 온라인 증언 목록을 살펴보면 12개의 메타데이터 상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메타데이터는 이용자에게 구술자 개인 정보,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경험, 생존자 이외 경험, 인터뷰 정보를 제공한다. USC Shoah 온라인 증언 목록의 메타데이터 요소들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지역에 대한 메타데이터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나치로부터 피해 도망 다녔던 유대인들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으

11) 김주관, 「문화사료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지방사와 지방문화』 9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06, 470쪽.

12) <http://dornsife.usc.edu/vhi/>

13) [http://tc.usc.edu/vhitc/\(a5qv3ljm0eadavnyww5wnlfw\)/default.aspx](http://tc.usc.edu/vhitc/(a5qv3ljm0eadavnyww5wnlfw)/default.aspx)

며 장소 관련 다양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통해 구술자들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USC Shoah 온라인 증언 목록은 구술자들의 증언에 대한 검색이 그들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 구술자의 개인정보만이 아닌 홀로코스트 경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메타데이터 요소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은 ‘2차 세계 대전 중의 유대인 홀로코스트 경험’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질문지를 통해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요소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구술자의 생애 정보는 동영상과 함께 전거래코드로 제시되고 있다.

유대인 여성 아카이브(Jewish Women's Archive, 이하 JWA)<sup>14)</sup>는 Virtual Archive(가상 아카이브)를 통해 유대인 여성 관련 구술기록물이 어느 기관에 존재하는지 위치 정보 제공한다. 구술기록물의 위치 정보는 인물명, 주제, 직업 또는 위치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검색 가능하며 구술기록물 관련 정보는 인물, 조직, 콜렉션, 보존소 그리고 자료로 구분된다. JWA는 인물 영역에서 메타데이터 중 직업요소를 통해 여성의 전생애 걸친 직업의 변화를 모두 표시하고 있다. 직업의 변화를 통해서 여성의 삶의 변화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위의 구술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록 계층 분류나 메타데이터를 통한 구술자 생애 정보 제공 방식의 사례는 여성구술기록물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요소 추출과 구조에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여성구술생애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의 논리적인 시스템 구조를 위해서는 계층별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구술생애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목적에 따라 기록 계층 구조는 생산자 중에서도 면담자 보다는 구술자 중심의 설계가 바람직하며 지역과 직업 등의 특징이 메타데이터 정보로 표현

---

14) <http://jwa.org/archive/jsp/search.jsp>

되어야 한다.

셋째, 구술생애기록물이므로 생애 정보에 대한 풍부한 표현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전거레코드와 주제 시소러스 등을 통해 상호참조와 주제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여성구술기록물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개념 모델

기록은 이용자에게 진본성과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내용과 기록물들 간의 관계에 대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록물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기술이 필요한데, 이는 메타데이터와 그것의 구조화를 통해 가능하다. 메타데이터는 정보를 지적으로 통제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 유형을 정리한 2차적인 정보를 말한다<sup>15)</sup>. 메타데이터를 통해 구술기록물 특성의 표현이 가능하며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sup>16)</sup>. 구조화된 메타데이터 요소는 메타데이터 매핑이나 해석을 위한 개념 모델을 제공한다.

메타데이터 개념 모델은 메타데이터 주요 엔티티와 메타데이터 요소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적합한 메타데이터 요소 추출과 활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술기록물의 생산, 관리, 이용을 위해서는 구술기록물 메타데이터 개념 모델링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성구술생애기록물 메타데이터 개념 모델을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5) 한국기록학회 엮음, 『기록학 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8. pp. 97-98.

16) 자원발견 메타데이터, 레코드키핑 메타데이터, 보존 메타데이터, 기술 메타데이터, 구조 메타데이터 등.

첫째, 구술기록물의 특성뿐만 아니라 여성구술생애사의 특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둘째, 구술기록물의 생산에서 이용까지의 전 과정 영역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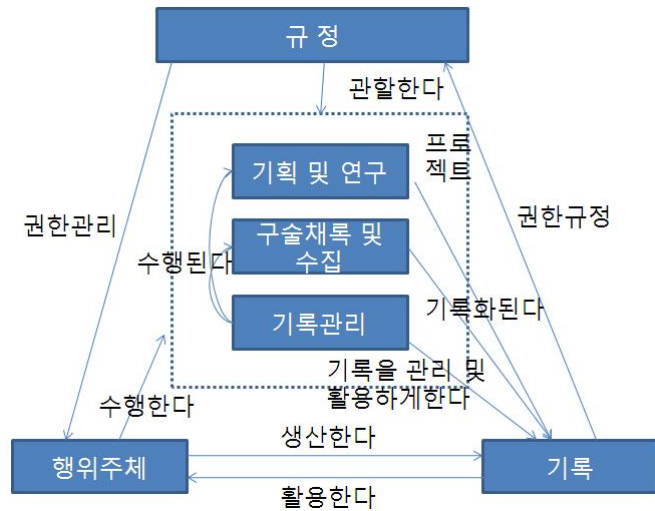
셋째, 기록의 속성인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메타데이터 개념 모델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한다.

기록관리는 활동의 증거로서 업무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생산된 기록물을 관리한다. ISO 15489에서는 기록관리 맥락에서 메타데이터를 기록의 맥락과 내용, 구조 및 관리사항을 기술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으며 ISO 23081은 ISO15489의 요구사항에 레코드키퍼 메타데이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엔티티 모형을 도입하여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의 유형을 기록자체에 대한 메타데이터, 업무규칙이나 정책과 법규에 대한 메타데이터, 행위주체에 대한 메타데이터, 업무활동이나 과정에 대한 메타데이터, 기록관리 과정에 대한 메타데이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ISO 23081은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틀을 규정하고 메타데이터를 통제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으며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엔티티 유형별로 획득해야 할 메타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sup>17)</sup>.

---

17) 설문원, 「메타데이터 설계를 위한 기록의 계층 구조 분석」, 『한국비블리아 발표논문집』, 13, 한국비블리아학회,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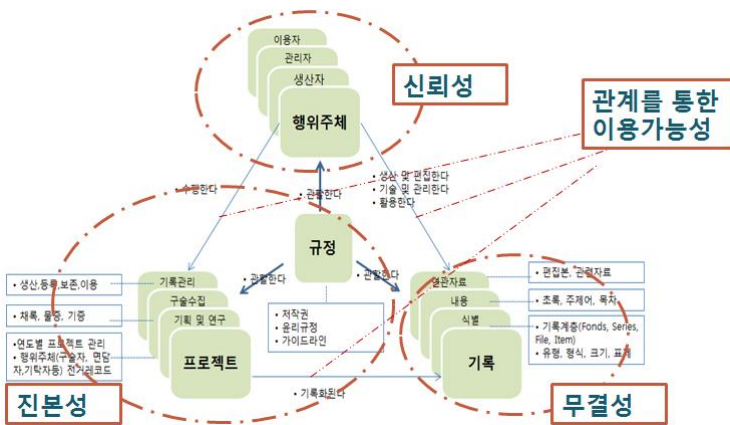
[그림 1] 여성구술생애기록물 프로젝트 주요 엔티티 관계

위의 [그림1]<sup>18)</sup>은 ISO 23081을 준용하여 여성구술생애기록물 관리에 적용해 본 것이다. 구술기록물은 대부분 책임기관의 주도 하에 수집되어 보존·관리되기 때문에 구술기록물 아카이브는 책임기관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술기록물의 생산 목적과 배경 등의 맥락 정보와 함께 획득 되어져야 한다. 또한 수집활동의 결과물로서 기록물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생산 이전, 생산 이후의 보존과 관리,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로의 이관 이후의 이용까지 전 과정을 염두에 두어 설계되어야 한다. 즉 기록관리 영역에서 구술기록물은 메타데이터 개념 모델과 요소설계를 통해 생산부터 이용까지의 전 과정이 표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록물간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록물들의 맥락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18) ISO 23081-2:200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Managing metadata for records - Part 2: Conceptual and implementation issues, 2009.

이를 위해 기록 자체에 대한 메타데이터, 여성구술생애기록물 수집 관련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규정이나 정책 및 법규에 관한 메타데이터, 연구 프로젝트 행위주체에 관한 메타데이터, 기록관리 과정에 대한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기록에 관한 메타데이터 등으로 기록관리 시스템 내에서 설계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메타데이터의 범주를 나누었다.

구술기록물 아카이브는 모기관에서 프로젝트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료되는 시점까지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물들을 아카이브로 이관하여 보존, 관리,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기획 및 연구, 구술기록물의 생산과 관리, 구술기록물을 이용한 연구 등에 관한 내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ISO 23081에서 제시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주요영역과 그 관계를 이용하여 여성구술생애기록물 메타데이터 개념 모델을 설계하였다.



[그림 2] 여성구술생애기록물 메타데이터 개념 모델

첫째, 구술기록물의 진본성을 위해 기록물의 생산, 접수, 유지를 통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구술기록물의 생산 이후 원본과 이용을 위한 편집본을 따로 두어 원본을 보호한다. 둘째, 구술기록물은 구술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프로젝트 수행 과정 중에 생산되므로 생산자를 구별하여 행위주체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는지 생산자 정보, 생산자 생산이력관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셋째, 행위주체, 프로젝트, 규정, 기록 등의 주요영역 간의 관계를 통해 구술기록물이 쉽게 검색되고, 보여지고, 해석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주요 영역 간 관계를 설정하고 기록들 간의 연계성을 유지한다.

메타데이터 주요 영역에서 규정영역은 한국연구재단의 규정, ‘근대와 여성의 기억’ 아카이브 규정(내부 연구진 자료 기탁 원칙, 구술채록 자료 이용 원칙)의 내부 규정과 예비질문지 가이드라인, 동영상 촬영 가이드라인, 녹취록 가이드라인, 기탁 가이드라인 등의 가이드라인, 구술채록 윤리규정, 그리고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행위주체는 책임자 및 책임기관, 구술자, 면담자, 녹취자, 촬영자, 편집자 등의 생산자, 기록관리자와 시스템관리자 등의 관리자 그리고 이용권한에 따라 구분되는 이용자로 구성된다. 프로젝트 영역은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프로젝트 관련 기획과 연구 활동, 프로젝트 관련 전반적인 관리의 기획 및 연구, 면담을 통한 구술채록 및 채록 시 구술자로부터 받게 되는 물증과 기증 또는 위탁을 통한 구술기록물 수집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구술수집, 기록물의 생산, 등록, 보존, 이용에 이르는 기록관리 과정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다루는 기록관리로 구분된다. 기록 영역은 기록물을 식별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로 구성된 식별, 기록물 자체 내용에 대한 메타데이터인 내용, 기록물과 연관되어 있는 기록물이나 2차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인 연관자료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구분된 내용들은 다시 메타데이터 상위요소와 하위요소로

나뉜다. 다음의 표는 여성구술생애기록물 메타데이터 상위요소와 하위요소를 추출한 것이다.

주요 영역	상세	상위요소	하위요소
규정	규정	Mandate(규정)	Mandate Type (규정 유형)
			Mandate Name(규정명)
기획 및 연구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anagement (프로젝트 관리)	Project Name (프로젝트 명)
			Project Period (프로젝트 기간)
			Research Works Schedule(연구수행 일정)
			Researcher Management (연구진 관리)
구술수집	구술수집 관리	Collecting Place (수집장소)	Place(장소)
		Collecting Method (수집방법)	Recording(채록)
			Donation(기증)
			Physical evidence(물증)
기록관리	기록관리	Description (기술)	Description Date (기술날짜)
			Description Text (기술내용)
		Location(위치)	RMS ID
		Rights (권한)	Security Reason (비밀등급 사유)
			Protection Period (보호지정기간)
			Security Level(보안등급)
			Security Mandate (비밀 규정)
			Internal Access Control(내부접근통제)
			External Access Control(외부접근통제)
			Limited Contents (부분공개 내용)
			External Access Due(외부접근예정)

			External Access Mandate(외부접근규정)
		Business History (생산이력)	Traction Agent (생산자 유형)
			Transition Date Time (인수인계가 발생한 일시)
			Taking Over Agent (인계 주체)
			Under Taking Agent (인수 주체)
		Management History (관리이력)	Event Description (원본관리 이력 기술)
			Event Date Time (해당관리 수행 일시)
			Event Agent (관리행위 수행자)
		Use History (이용이력)	Use Date Time (이용 일시)
			Use Agent (이용 및 접근자)
			Use Type (이용 및 접근 유형)
행위주체	행위주체 유형	Creator(생산자)	Creator Type (생산자 유형)
			Corporate Name(기관명)
			Person Name(개인명)
		Manager(관리자)	Manager Type (관리자 유형)
			Manager ID (관리자 아이디)
			Manager Name(관리자명)
User(이용자)	User ID(이용자 아이디)		
	User Name(이용자명)		
기록	식별	Identifier (고유식별자)	Main ID(주요 아이디)
			Reference ID (참조 아이디)
		Title (표제)	Title Words(제목)
			Alternative Title Words(부제목)
Type (유형)	Record Type(기록 유형)		

		Format (형식)	Primary Color(원색)
			Media Format (미디어 형식)
			Data Format (데이터 형식)
		Extent (크기)	Count(파일 개수)
			Size(용량)
		Date (일시)	Date Time Created(생산일)
			Date Time Recrepted(등록일)
		Authenticity (진본여부)	진본(Authentic)
			편집본(Version)
		Aggregation Level (기록계층)	Fonds(종)
			Series(시리즈)
			File(파일)
	Item(아이템)		
	Component(컴포넌트)		
	Relation (관계)	Relation Type(관계 유형)	
		Relation Item ID (관계 대상 식별자)	
		Relation Description (관계 기술)	
	Language (언어)	Korean(한국어)	
		English(영어)	
		Etc.(기타)	
	내용	Subject (주제어)	Korean(한국어)
English(영어)			
Abstract(초록)		Korean(한국어)	
		English(영어)	
Table of Contents Tagging(목차태깅)		Table of contents information(목차내용)	
		Start time(시작시간)	
Subject Information (피사체 정보)		Explanation(설명)	
		Contents information(내용정보)	
		Background information(배경정보)	
Purpose (촬영 목적)		Regional information(지역정보)	
	Purpose of Taking a picture/Videoing		

			(사진/동영상 촬영 목적)
연관자료	Original Information(원본정보)	Location(위치)	
	Version Information (편집본 정보)		
	Related Record Information (관련자료 정보)	Publication(간행물)	Related Record(관련자료)

[그림2]의 메타데이터 개념 모델의 영역 중, 규정, 기획 및 연구, 구술수집, 기록관리, 행위주체, 기록을 주요영역으로 설정하여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하였다. 구술기록물 수집이 대부분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기획 및 연구 영역에서 프로젝트 관리가 상위요소로 설정되었다. 구술기록물 수집과 관련하여 수집 장소와 수집방법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구술수집의 영역에서 수집 장소와 수집방법을 상위요소로 설정하였다. 구술기록물은 다양한 행위주체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다양한 행위주체를 표현하기 위해 생산자, 관리자, 이용자 등의 상위요소를 두었다. 이 행위주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거레코드를 통해 이용자에게 풍부한 배경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메타데이터 개념 모델링에 앞서 메타데이터 개념 모델을 설계할 때, ‘여성’의 ‘생애’와 내러티브, 그리고 구술기록물의 생산에서부터 이용까지의 전 과정과 기록의 4대 속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분단’, ‘개발’, ‘식민’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역사에서 배제된 여성의 생애에 대해 구술자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한 것들 중 중요한 내러티브를 가진 것들에 대하여 주제 시소러스를 만들어 표현한다<sup>19)</sup>. 여성의 생애를 단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직업 변화와 지역의 이동이다. 이는 전거레코드를 이용하여 표현한다<sup>20)</sup>. 구술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쳐 생산되는 기록물을 획득하고

19) 시소러스 연구는 2차년도 연구과제이다.

20) 전거레코드는 4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구조화하기 위해서 ISO 23081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의 주요 엔티티 모형을 준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록의 4대 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

#### 4. 여성구술생애기록물 기록계층 분류

메타데이터 각각의 엔티티들은 몇 개의 계층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기록 엔티티는 가장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sup>21)</sup>. 따라서 메타데이터 설계를 위해서는 기록 계층을 구분하기 위한 원칙과 계층의 구조를 먼저 확립해야 한다.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체계에서는 기록 계층에 따라 적용되는 메타데이터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계층 구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록은 기록의 내용보다는 기록이 존재하도록 만든 기능이나 활동에 근거하여 분류된다<sup>22)</sup>. 즉 기록 분류의 초점은 내용이 아닌 기록이 생산되고 활용되는 맥락에 있으며 이러한 맥락의 핵심은 업무활동이나 기능이 된다. ISO 15489는 업무분석을 통해 기록 분류체계를 개발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록을 생산한 업무를 반영해야 하고 조직의 업무활동 분석에 기반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술기록물 역시 기록계층 구조를 통해 구술 아카이브가 논리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즉, 계층 구조 설계에 구술기록물의 내용이 아닌 구술기록물이 생산되고 활용되는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구술기록물의 생산은 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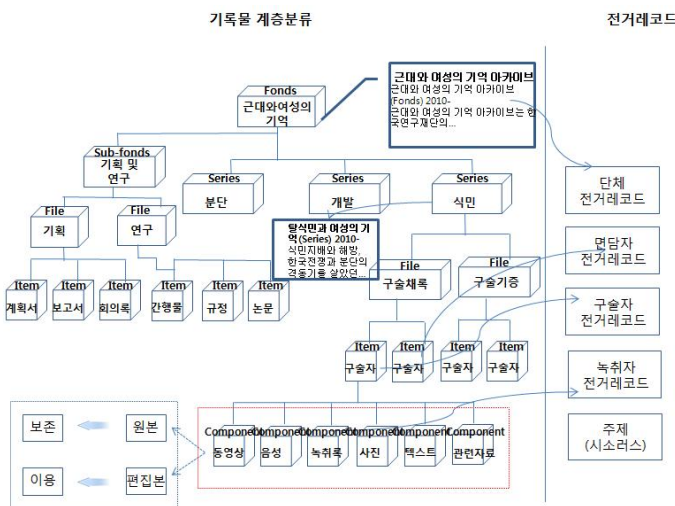
21) 설문원, 「메타데이터 설계를 위한 기록의 계층 구조 분석」, 『한국비블리아 발표논문집』 제13집, 한국비블리아학회, 2005.

22) 설문원, 같은 글.



젝트 업무 간의 연계가 잘 표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메타데이터 주요 엔티티와 메타데이터 요소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를 통해 검색 뿐 아니라 접근 제한과 보안관리 등의 기록관리 수행에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구술기록물은 구술자와 인터뷰를 하는 활동인 구술채록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이다. 즉, 구술기록물은 구술자의 기억을 기반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구술자는 구술기록물 분류 및 통제 상의 가장 기초적 단위가 된다. 이 기록들은 구술자를 중심으로 상호연계성 속에 정리·보존되어야 한다<sup>23)</sup>.

기록 계층은 대-중-소, 기능별로 기록군, 기록하위군, 시리즈, 파일 등으로 분류된다. ‘근대와 여성의 기억’ 아카이브의 기록 계층 분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근대와 여성의 기억’아카이브 기록계층 구조

23) 김명훈, 「디지털 구술기록의 생산 및 정리·보존 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 기록관리학회지』 제10권 제1호, 2010, 13쪽.

‘근대와 여성의 기억’ 아카이브의 기록계층 분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능 및 업무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근대와 여성의 기억’ 연구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주제 관련 연구를 하는 ‘기획 및 연구’와 ‘분단’, ‘개발’, ‘식민’의 각 주제별로 구술기록물을 수집하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프로젝트가 ‘근대와 여성의 기억’이라는 전체 주제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아카이브가 설립되기 때문에 연구주제를 기록 계층의 최상위 단위인 기록물군(Fonds)으로 설정하고 하위 기록물군(Sub fonds)으로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획 및 연구’로 분류하였다. 각 주제별 구술기록물 수집활동은 구술채록과 구술기록물 기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기록물군의 하위로 주제별 구술채록 및 구술기증을 포함하는 구술수집 부문을 시리즈(Series)로 설정하였다.

‘기획 및 연구’는 ‘근대와 여성의 기억’ 연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기획과 연차별 프로젝트 관리, 주제관련 연구를 통한 성과물을 생산한다. 업무활동인 ‘기획’ 부문에서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계획서나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 프로젝트 관련 회의록, 워크숍 자료집 등이 생산되며 ‘연구’부문에서는 각 주제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연구와 관련한 간행물, 논문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규정이 생산된다.

각 주제별 구술수집 기능을 담당하는 ‘분단’, ‘개발’, ‘식민’은 업무활동으로 구술을 채록하고 각 주제와 관련한 구술기록물을 기증 받는다. 채록과 기증을 통해 수집된 구술기록물들은 ‘구술자’ 별로 분류된다. 구술 수집은 구술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록계층 분류에서 구술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구술자’ 별로 동영상, 음성, 사진 등의 이미지, 텍스트, 녹취록, 관련자료 등이 소속된다. 매체별 기록물들은 모두 원본과 편집본을 따로 두어 원본을 보호하고 저작권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편집본을 통해 기록물을 활용한다.

메타데이터 요소를 통해 구술생애사 특징 중 하나인 내러티브를 드러내기 어려운 점은 전거레코드<sup>24)</sup> 설계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여성의 생애를 잘 드러내는 전 생애의 직업 변화와 지역의 이동을 구술자 전거레코드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구술기록물은 구술자, 면담자, 녹취자, 촬영자, 편집자등의 공동의 생산자를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공동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록물을 생산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기록물의 생산에서부터 이용까지, 기록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관리와 편집과정의 중요성(기록관리자, 편집자)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전거레코드를 구축하여 연계한다.) 뿐만 아니라 구술내용과 관련된 단체나 사건과 관련한 전거레코드도 구축하여 구술기록물에 대한 풍부한 배경정보를 제공한다. 구술자의 생애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전거레코드 요소 설계와 메타데이터 주요 영역과의 연관 관계는 여성구술생애기록물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으며 특정 시리즈의 구술자가 구술한 내용에 다른 시리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sup>25)</sup>에는 주제 시소러스를 통해 연관관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설문원은 검색도구의 발전 과정을 언급하며 출처 기반의 계층형 검색도구가 이용자 입장에서 어렵고 복잡하고, 구체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며, 공급자 중심으로 검색 대상이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sup>26)</sup>.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색도구의 복합화, 통합화, 개방화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직형 검색도구의 문제 해결책은

24) 기록물 목록에서 접근점으로 선정된 단체/기관, 인물, 사건 등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상세 기술하고 다른 전거레코드와 연결하여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조직화한 레코드를 말한다.  
 25) ‘근대와 여성의 기억’ 연구 프로젝트의 ‘식민’, ‘분단’, ‘개발’의 주제는 구술자 개인의 생애에서 단절되지 않고 맥락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26) 설문원,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과 전망」, 『기록학연구』, 23, 한국기록학회, 2010.

수직형 검색도구의 개선이 아닌 수직형 검색도구 외의 다양한 접근수단의 제공과 개발 방식의 변화에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의 기록계층 구조는 수직형으로 출처의 원칙을 존중하며 이용자에게 기록의 생산 맥락과 구조를 함께 보여주하고자 고려된 것이다. 이 구조는 전거레코드와 연결되어 행위주체와 사건에 대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공되며, 이용자가 구술기록물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제 시소러스를 검색도구와 연계시키고 주제 전거나 관련 기록물의 링크를 제공한다. 따라서 단순한 수직형 검색도구라고 보기 힘들며 오히려 설문원의 논문에서 유형화한 복합형에 가깝다<sup>27)</sup>.

## 5. 결론

본 논문은 앞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근대와 여성의 기억’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여성구술생애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하는 메타데이터를 도출하고자 기존의 구술 아카이브 사례연구를 통해 메타데이터 요소와 요소들간의 관계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구술기록물이 논리적으로 계층적으로 구조화 되어야 하며 이용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간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술기록물은 구술자의 기억을 바탕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구술자를 구술자 중심의 설계가 바람직하고 구술자가 구술기록물 분류 및 통제 상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 구술생애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정보에 대한

---

27) ‘근대와 여성의 기억’ 연구 프로젝트 2차년도에는 타기관과의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에 대하여 연구한다. ‘근대와 여성의 기억’ 아카이브가 소장한 기록물을 타기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풍부한 표현이 필요하며 이는 전거레코드와 주제 시소러스 등을 통해 상호참조와 주제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선 사례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메타데이터 개념 모델과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기록계층을 구조화 하였다. 메타데이터 개념 모델과 요소 도출 그리고 기록계층의 구조화는 구술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활동에 대한 맥락을 확보하고, 기록의 결합관계를 통해 구술채록과 관련된 기록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구술채록 이전과 이후에 산출된 기록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은 프로젝트 과정 중 수정을 통해 완성되어갈 것이다. 젠더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를 위해 구술기록물에 대한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해 4장에서 제안된 주제 시소러스에 관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므로 후속 연구로 남겨두었다.

##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평가분류팀, 『국가기록원 기록물 기술규칙(안)』, 국가기록원, 2006.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국가표준 KS X ISO 15489 해설』, 국가기록원, 2006.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 현용·준현용 기록물 용』, 국가기록원, 2007.
- 권미현, 「구술사료의 기록학적 관리방법 연구」, 『기록학연구』, 10, 한국기록학회, 2004. 112~144쪽.
- 김명훈, 「디지털 구술기록의 생산 및 정리·보존 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0권 제1호, 2010, 7~29쪽.
- 김명훈,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 한국기록학회, 2010, 73~112쪽.
- 김주관 외, 『구술 기록물 종합 관리 체계 방안 및 구술 채록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2007.
- 박진희, 「국제표준 기록물 전자제어 기술규칙 초판과 개정판의 비교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7, 341~361쪽.
- 설문원,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과 전망」, 『기록학연구』, 23, 한국기록학회, 2010, 3~43쪽.
- 설문원, 「메타데이터 설계를 위한 기록의 계층 구조 분석」, 『한국비블리아 발표논문집』 13, 한국비블리아학회, 2005, 15~39쪽.
- 윤택림, 함한희 공저,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06.
- 이정연,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6권 제1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09, 163~184쪽.
- 최은주, 이정연, 「웹 구술사료(口述史料) 아카이브 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평가용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6권 제4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09, 277~298쪽.
-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8.
- Ben Alexander, “Excluding Archival Silences : Oral History and Historical Absence”, *Archival Science* vol.6, number 1, 2006, pp 1-11.
- Francois Rochat, “Phychology, Archives, and Memory”,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n Archives, 2004.ISO 15489-1:200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 Part 1: General, 2001.
- ISO 23081-2:200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Managing metadata for records - Part 2: Conceptual and implementation issues, 2009.
- ISA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Second Edition, 2000.
- ISAAR(CPF): International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 1996.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4월혁명구술아카이브즈  
<http://oralhistory.kdemocracy.or.kr/servlet/com.avatar.mms.cybr.main.MainCmd>
-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회  
[http://www.minjung20.org/new\\_archives/](http://www.minjung20.org/new_archives/)
- USC Shoah 재단 아카이브  
<http://dornsife.usc.edu/vhi/>
- 유태인 여성 아카이브  
<http://jwa.org/archive/jsp/search.jsp>

## ABSTRACT

### **A Study on metadata structuralization for context representation of women's oral life history**

Lee, Jung Yeon·LEe, Jung Yeoun·Ryoo, Jong Duk·Lee, Jong Yoon

Oral history is the work to make the record of the verbal content recreated by the memories of the survivors. Oral history recording is accomplished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the interviewee, the interviewer, the cameraman, the recorder, the transcriber and etc.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the context at the time of the production to be expressed. So planning for the collection of oral records, the collection of oral records, and their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should be managed systematically.

This study, being started from this sense of problem, designed conceptual model of metadata to well reflect the contextual characteristics of the oral records of the women life of among the oral records and extracted the elements through this. The whole process of records management including from planning, production, preservation, management, and leading to use, related to the oral records of the women life, was classified into a hierarchy. It also proposed the system which can expr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der' through authority records and subject thesaurus.

**Key words : Women's oral records, oral life history, metadata modeling, oral archives, oral history, records**